

건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수료하며(2)

김 현 철

건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 52기 수료생
LG 건설(주) 사원

본인이 본 양성과정을 수강하면서 실습시에 느낀 바로 본현장의 장점은,

① 안전요원·시설의 과감한 초기 투입 ② 공사 초기 직원들의 높은 안전의식 ③ 정리정돈의 초기정착으로 비교적 쾌적한 현장 환경 유지이며

반면에 단점은,

① 계획·조직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공사 중반 이후부터 나태해진 모습 표출

* 이는 한번 좌절된 100만 시간 달성에도 원인이 있으리라 본다(중요한 것은 아니지만).

② 반장들의 안전 활동·의식, 교육수준의 열악

* 이는 노령의 반장일수록 심각하게 나타난다.

이 중에서 다른 것은 제외하고 반장들의 안전 활동이 가장 중요한 면이 아닌가 싶다. 실제 작업자들을 기사가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. 그래서 각 공종별 반장의 의식수준(안전, 품질, 원가의 모든 면)이 작업상황에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. 물론 반장들의 태도는 원청의 직원들이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. 하지만 “갑”과 “을”의 관계에서 단기간내에 큰 효과를 보기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(이는 노령의 반장일수록 심각하다).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약에서부터 손해를 보지 않고도 안전투자,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며, 그런데도 몰라서 못 한다면 해외현장 견학이나 소집교육 등의 예외적이고 큰 효과가 기대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.

실제 지금까지 현장에서의 안전활동은 머리로 생각하고, 간접 경험을 통한 것을 적용하고 연구하는 면보다는 돈 안드는 입으로 서로 마주보고 서서 떠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을 것이다. 지금부터라도 안전도 체계적인 학문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과학적일 수 있고, 또 공사에 공사비가 딸린 것처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전활동비의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겠다.

끝으로 당 현장은 다음 기수까지 총 7명의 인원을 양성교육에 참여시켜 수료시킬 예정인 바 앞으로 안전의 성취에 많은 기대를 해본다.